

2015년06월04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⑤	③	①	②	①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④	④	③	⑤	①	④	①	④	⑤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 · 오답 · 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수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②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옳은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③ 유일신에게 귀의하여 이상 세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 ④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 ⑤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국가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군인, 생산자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통치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을: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 ① 갑: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 된다.
- ② 갑: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 ③ 을: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재화가 분배된다.
- ④ 을: 국가 기능의 확대에 복지가 최대한 보장된다.
- ⑤ 갑, 을: 생산과 소유에서 절대적 평등이 실현된다.

3. 갑,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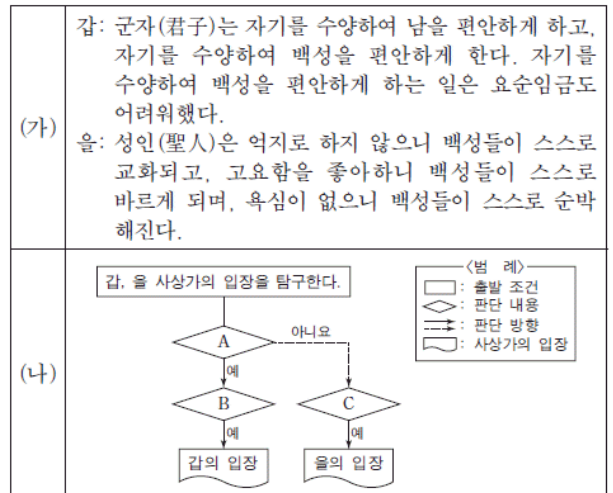
갑: 마음[心]은 사람의 신묘하고 밝은 곳이다. 못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온갖 일에 대응한다. 성(性)은 마음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을: 마음은 곧 이치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 하며, 상황에 맞는 것[條理]으로 말하면 이(理)라 한다.

- ① 마음을 바로잡아야 이치를 확립할 수 있는가?
- ② 만물의 이치는 선한 마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가?
- ③ 도덕적 실천이 도덕적 지식을 완성하는 것인가?
- ④ 앎을 늘려가는 공부가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한가?
- 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해야 천리를 보존할 수 있는가?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 [\[다운로드\]](#)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 ② B: 문명(文明)의 발달이 없는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③ B: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 ④ C: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 ⑤ C: 시비선악의 분별을 통한 무위(無爲)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보기〉—

- ㄱ.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인연(因緣)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생성된 현상도 무상하다. 현상은 '나'가 아니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를 속박하는 이 법(法)을 끊어 버리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 것이다.</p>																				
(나)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40%;">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 제법○○ (B):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운 명나라 왕수인의 호. ○○학</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① 중도(中道)를 추구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②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마음이다.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이다.

⑤ 백성의 욕망을 줄이고 그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통치 원리이다.

7.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더 적은 것을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한다면 헛된 일이다.
○ 자명하거나 경험에 의해 알려지거나 성경의 권위에 의해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확증되어서는 안 된다.
○ 보편자가 개별자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면서 그것들과 구별된다면 보편자는 개별자들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다.

—〈보기〉—

- ㄱ. 현상을 설명할 때는 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ㄴ. 보편자와 달리 개별자는 오직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ㄷ. 신학적 진리와 철학적 진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ㄹ. 실재하는 보편자를 인식해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의 '단'은 시작을 뜻한다. 백성을 자애롭게 대한 후에 인이라 하고, 자신을 옳게 한 후에 의라 하며, 손님을 맞아 인사한 후에 예라 하고, 사물을 분별한 후에 지라 한다.
을: 사단의 정(情)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순진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의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병: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원인[所以]은 이이다. 이른바 '기가 발함에 이가 탄다.'는 것은 옳다. 다만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① 갑은 사덕(四德)을 도덕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악(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사단의 선(善)과 칠정의 선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갑과 을은 인간만이 사단(四端)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을과 병은 본성에 천리(天理)인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이가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단(四端)의 '단'은 시작을 뜻한다. 백성을 자애롭게 대한 후에 인이라 하고, 자신을 올곧게 한 후에 의라 하며, 손님을 맞아 인사한 후에 예라 하고, 사물을 분별한 후에 지라 한다.
 을: 사단의 정(情)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의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병: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원인[所以]은 이이다. 이른바 '기가 발함에 이가 탄다.'는 것은 옳다. 다만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사람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밝게 깨달을 수 있다. 만사(萬事)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고, 측은·수오·시양·시비를 행할 수 있어서 어느 것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다.

— < 보 기 > —

ㄱ. 이는 기의 동정(動靜)을 통해 발현되는 도덕 원리이다.
 ㄴ. 시비(是非)의 판단기준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ㄷ. 양지는 마음에서 활발하게 드러나는 참된 이치[眞理]이다.
 ㄹ. 경(敬)으로 사욕을 제거하여 이의 참모습을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두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다. 한 명의 신념을 위해 다수의 신념을 억압해서는 안 되듯이, 다수의 신념을 위해 한 명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을: 일반에게 승인되고 있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터놓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①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부인해야 한다.

② 나와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④ 하나의 가치만이 옳다는 신념으로 가치의 다원성을 배격해야 한다.

⑤ 다수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보다 소수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이 옳다.

11.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너와는 관계없으며 너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을: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두를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심신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정치 참여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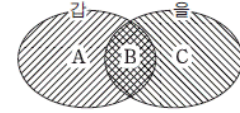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곱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을: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른 후에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p>
(나)	

① A: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② A: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③ B: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C: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⑤ C: 항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13.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가 입법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 :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여야 한다.
- ② 갑 : 의무를 따르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을 :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
- ④ 을 : 감각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보아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가 입법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을

덕은 전통과 서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내면화된 덕은 일반화된 법칙으로부터의 추론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판단력으로 드러난다. 덕의 소유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덕의 결여는 선의 성취를 방해한다.

- ①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합리적 판단 능력도 도덕의 필수 조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개인의 도덕성 형성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원리의 이해보다 도덕적 품성 함양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15. 서양 사상이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륜은 법과 도덕의 개념을 종합시킨 공동체의 윤리로서 가족,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가족은 자연적인 인륜이고,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결합체이며, 국가는 절대 부동의 자기 목적이다.

을: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다르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애에 따라 평화와 상호 보존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폭력과 상호 파괴의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 ①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장을 위한 계약의 산물인가?
- ② 개인의 자연법적 기본권은 국가 구성원일 때만 주어지는가?
- ③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서만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
- ④ 국가는 지상의 신에 비유될 수 있는 절대적 도덕공동체인가?
- ⑤ 개인이 정부에 복종할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하는가?

16.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혼란한 세상을 구하려면 이단(異端)을 먼저 물리쳐야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학(正學)을 밝혀야 하며, 정학을 밝히려는 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한다.

을: 우리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런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병: 동양인은 형이상의 도(道)에 밝고 서양인은 형이하의 기(器)에 밝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 ① 갑은 성리학적 의리 사상을 내세워 서학(西學)을 반대하였다.
- ② 을은 인간 존중과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 ③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갑, 을은 외세 배척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 ⑤ 갑, 병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1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 사상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도덕적 행위자는 어떤 일정한 유형의 문화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명 덕택으로 그 자신일 수 있다.
- (나) 개인은 자신을 통제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모든 외적인 간섭은 위협이다. 개인은 스스로 가치와 목표를 선택하는 독립적 자아로서 좋은 삶을 계획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보다 공동체를 좋은 삶의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③ 개인 각자의 도덕적 견해들 사이에서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적 공동체의 역할을 넘어서면 안 된다.

⑤ 공동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일 수 없다.

1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간의 삶 자체는 의지이며, 의지에 의해 욕망이 생겨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이 생기고, 새로운 욕망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지루함이 생겨난다.

을: 인간은 세계에 던져진 '현존재(Dasein)'이다. 인간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 학생 답안

가,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의 ㉠ 인간은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로 인해 고통에 빠진다고 하였고, ㉡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고, ㉣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결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가, 을은 ㉤ 이성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① (㉠)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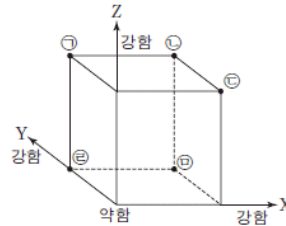
③ (㉢)

④ (㉣)

⑤ (㉤)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윤리, 언어와 함께 시장은 인위적 질서가 아닌 대표적인 자생적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에서의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나 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간섭은 정의롭지 못하다.
- (나) 국가는 조세 체계, 금융 정책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 성향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의 포괄적인 공공 지출은 시장 경제의 불가피한 속성인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 X: 작은 정부 지향 정도
- Y: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대한 신뢰 정도
- Z: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강조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20. 현대 서양 사상이 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는 최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관처럼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

을: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논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특수한 관계에서의 배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보기>

- ㉠. 가의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추론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 ㉡. 을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 ㉢. 을은 가에 비해 관계성을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강조한다.
- ㉣. 가, 을은 인지 능력의 발달보다 정서 함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